

# 쌀 값 상승에 농가 소득 늘었다

### 쌀값 지난해 4분기 20kg 당 5만699원 전년보다 11.5% 상승 벼농가 10a 당 순수익 35만7593원...생산비·총수입 모두 올라

지난해 전년보다 오른 산지 쌀값 덕분에 벼농가 수입이 전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농가 소득 증가는 쌀 생산비 증가폭보다 쌀 값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들의 논벼 총수입은 10a(1000㎡) 당 123만2953원으로 전년(117만1736원) 대비 6만1217원(5.2%) 올랐다. 논지의 총수입과 경영비의 차를 말하는 소득은 10a 당 65만4539원으로 전년(60만5615원)보다 4만8924원(8.1%)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생산비 전체를 뺀 순수익은 10a 당 35만7593원으로 전년(31만7275원)에 견줘 4만3018원(12.7%) 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급등

했던 국제 유가가 지난해 하향 안정세를 맞았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쌀값 뿐만 아니라 비료 등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생산비 뿐만 아니라 총수입까지 모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지 쌀값은 4분기 기준 지난해 20kg 당 5만699원으로 전년 동기(4만5455원)보다 11.5% 올랐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최고가를 기록한 뒤 5개월 동안 지속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전년보다는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지 쌀값이 수확기 전인 지난해 9월까지 꾸준히 오르면서 생산비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농가의 순수익 상승폭도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산지쌀값은 지난 25일 기준 20kg 당 4만8192원까지 떨어졌지만, 이조차 전년 동월(4만4545원)보다는 8.2%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0a 당 논벼 생산비는 87만5360원으로 전년(85만4461원)보다 2.4% 오르는데 그쳤다.

또 지난해 쌀 생산비는 20kg 당 3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431원(1.4%) 늘었다.

논지 10a 당 논벼 생산비를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94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60-69세(85만원), 50-59세(84만2000원), 49세 이하(80만2000원) 순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전남지역의 10a 당 논벼 생산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a 당 논벼 생산비는 전북이 9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92만6000원), 경기(87만8000원), 경북(86만6000원), 충남(86만3000원), 경남(84만9000원), 충북(84만5000원), 전남(82만2000원) 순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 '농사만사'

### 놀이 있는 시골 땅 어찌하리오

#### 놀리는 논·답 늘어 고심...농지은행제도 활용 현명한 선택을

예로부터 선조들의 땅에 대한 애착은 유별났던 것 같다. 그 때문인지 농사짓는 땅을 판다는 것은 웬만큼 큰 변고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도박이나 빚으로 집과 토지를 날리는 경우나 가족 병귀원을 위해 하릴없이 급속같은 땅을 팔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스스로 땅을 내놓는 것이 큰 일이고 드물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자식 농사를 위해 소는 팔아도 농토만은 팔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우리 부모님 세대 농부들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농촌이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되고 있는 요즘은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가는 것 같다. 농사짓기가 버거워 자식들에게 물려줬지만, 여러 사정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서 휴경하는 '놀리는 땅'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요즘 시골 땅은 거래도 없고 매매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고민이라고도 했다. 지키고 있자니 활용할 수 없을 것 같고 팔자니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생각은 어떠한 것이다. 나는 네가 판단할 문제라는 대답 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에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과감하게 땅을 판 처분한 이의 이야기를 떠 올렸다. 평생 농부로 살아온 한 어르신은 농사일이 힘들어져 은퇴하는 심정으로 농지를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농사만 짓느라 노후 준비가 안 됐다고 판

단한 그는 농지를 팔아 그 돈으로 노후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쌀농사를 짓던 곳이라 시세가 좀 덜 나온 것이 서운했지만 결정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했다고 전해진다.

두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교차했다. 땅을 포기하는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애달플까, 땅까지 판 돈인데 유용하게 쓰이겠지, 새로운 땅 주인은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 등등.

또 이들이 이 같은 결정에 앞서 '농지은행제도'를 운영하는 농어촌공사에 문의했으면 결정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농지은행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은퇴농, 자경군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임차·수탁받아 청년농, 창업농, 전업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에 매도·임대하는 농지 종합관리기구이다.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주고, 청년과 귀농·귀촌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등 쇠락하는 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주며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농부에게 있어 땅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 같은 존재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농사지를 사람이 줄어가고 놀리는 땅이 지천이 되면서 후 처분해야만 한다면, 땅이 가진 삶의 원천이자 생명을 키우는 터전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bigkim@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실시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지난달 29일 신안군 입자농협(조합장 진완산)에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농협농기계이동정비단, 농기계 생산업체 전문 기술자 등 30여명의 전문기술요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농가들로부터 미리 신청받은 트랙터, 경운기, 분무기, 예초기 등 영농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농기계에 대한 작동점검과 고장수리를 실시했다.

또 농가 스스로 농기계 기본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정비 및 안전 관리요령에 대해 현장교육도 병행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이 보유한 농기계 수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원활한 영농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봉사 외에도 영농편의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박종택(왼쪽 두번째) 전남농협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신안군에서 열린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금 사과' 맞았네"...한국 사과값 세계 1위

해당 조사 결과는 주요 국가 95개국을 대상으로 산출됐으며, 국내 사과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높은 미국, 스리랑카 등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사과 가격이 가장 높았고, 스리랑카(1kg·6.43달러), 자메이카(1kg·5.37달러), 미국(1kg·5.31달러) 순으로 높았다.

사과 가격이 급등한 것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과 생육기에 탄저병 등 질병이 발생했고, 이상기후로 인해 생장부진 등 약재가 거둬지며 공급량이 급감했다는 점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39만 4000t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15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등 과채류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과 공급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은 오는 7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달 29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무등산 평촌마을을 '팜스테이마을'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현호 본부장을 비롯해 김순택 광주농협조합장, 평촌마을 정태영 위원장, 광주-전남팜스테이협의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팜스테이마을은 농가에서 숙식하며, 농사, 생활, 문화체험과 주변 관광지 관광 및 마을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을 결합한 농촌 체험 관광마을이다.

무등산 북쪽자락에 위치한 무등산 평촌마을은

## 무등산 평촌마을 '팜스테이마을' 지정 현판식

반딧불이와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서식하는 등 우수한 생태환경으로 지난 2015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평촌마을은 도자기 공방 체험, 감자·옥수수 등 농산물 수확 체험, 곤충 탐사체험 등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으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호 본부장은 "광주시 내 유일한 농협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많은 도시민들이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도 각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농촌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무등산 북쪽자락에 위치한 무등산 평촌마을은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                     |                     |                      |                        |
|---------------------|---------------------|----------------------|------------------------|
| 용산지점 062)526-0222~3 | 유동지점 062)512-1984~5 | 유덕지점 062)373-3235~6  |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
| 치평지점 062)381-8212~3 | 동림지점 062)513-8521~3 | 동운지점 062)528-2640~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 쌍촌지점 062)381-6551~2 | 운암지점 062)527-3295~6 | 버들지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 외정지점 062)372-0421~3 | 운전지점 062)371-2772~3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다림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